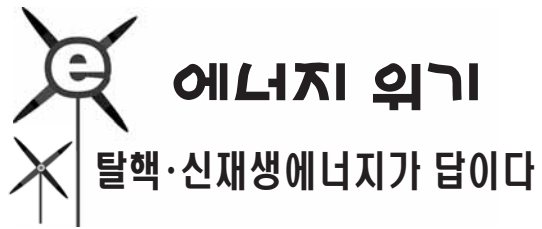


# 에너지의 미래는? 풍력·태양력... 그린에너지 개발이 해법



## ⑫ 에필로그

원전 중심의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문제성을 지적하고 탈핵·신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기획이 이제 종착역에 다다랐다.

취재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선 다행히 전국민의 동참으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을 무사히 극복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는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방사능 오염수 바다 유출이라는 사태로 번져 지구촌을 긴장시키고 있다.

또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재집권함에 따라 그가 추진하고 있는 탈핵 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속할 수 있게 됨으로써 탈핵 국가로서 또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다.

	제1차 계획	제2차 계획
계획기간	2008~2030년	2013년~2035년
5대 중점과제 (정책 목표)	에너지 자립사회 구현 자주개발률 3~40%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 전력수요 15% 이상 감축
	탈석유 사회로 전환 석유의존도 43~33%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발전량 15% 이상 점유
	에너지 저소비사회 전환 에너지원단위 0.34~0.18	환경보호, 안전강화 발전부문 온실가스 20% 감축
	녹색기술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에너지 기술 수준(선진국대비) 60~100%	에너지 안보 강화 자원개발률 40%, 신재생 보급 11%
원전 비중 (발전설비 비중)	41%	22~29%에서 결정
신재생보급 (총에너지)	11%	11% (목표유지)
수립과정	정부차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민·관 거버넌스가 직접 초안을 작성
법적 수립절차	에너지위원회 심의	에너지위원회 → 녹색성장 위원회 → 국무회의 심의

자료: 환경부, 기획재정부, 에너지위원회

에너지 위기와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세계적인 분위기에서도 우리 에너지 당국은 이렇다할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인 국가 에너지 틀을 어떻게 짤지 논란만 뜨겁다. 최근 2008년 이명박 정부가 1차 계획 때 제시한 2030년 원전비중 41%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2차 국가에너지 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얼마나 축소(22~29%에서 결정)해야 하는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신의 핵(核) 원전 아쉬운 대책들=한국과 일본의 원전을 찾아본 현장취재에서 우리의 에너지 위기의 근저에는 핵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정도로 망가져 버린 원전에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탈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불식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을 강요하고 원전의 이름까지 바꾸는 웃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6기의 원전을 안고 사는 광주·전남 지역으로서는 재앙을 뚫고 살 수 있는 큰 불안 요소로서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탈핵단체들이 중국 원전을

으로 정하고 넓은 들과 바다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남도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육성사업을 보다 강력히 추진키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 3대전략과 이에 따른 공공시설물 신재생에너지 시설 12개소 설치 등 13개 세부추진 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그린산업' 매카로 발돋움하는 경남도는 항만, 도로 등 기존에 갖춰진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창원지역에 밀집해 있는 대규모 조선업체를 기반으로 풍력발전산업분야 육성에 매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수도'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바람개비를 돌려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탄소없는 섬'을 만들고자하는 제주도의 에너지 정책은 기대가 크다.

## 탈원전 목소리에도 '국가에너지계획' 여전히 원자력 중심

### 지구촌 녹색성장 주도 獨정부 신재생 정책 관심 기울려야

비롯해 원전 수십기가 설 황해권을 '동북아의 화약고'라며 장기적인 안전을 위해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찾아지는 전력난과 블랙아웃 위기가 따져보면 정부의 무책임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가져온 리스크라는 점도 확인됐다.

원전의 잦은 고장도 노후 원전의 부품결함으로 인한 장기간의 운전 중단은 '고효율' 에너지로서의 위상까지 위협 받는 상황이다. 지진과 쓰나미라는 자연의 재앙이 현대 에너지 기술의 충아를 덮치면서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세계인의 관심을 사고 있다.

하지만 원전 재앙의 장본인인 일본 정부는 자국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원전 공포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최근 가동을 멈췄던 원전의 재가동을 심의하는 등 원전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다행인 것은 한국 원전의 잇단 사고와 비리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한 원전 운영과 더불어 다가올 원자로 폐로 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연 신재생에너지에 길이 있다=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실패속에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는 달리 광주·전남을 비롯한 각 지자체들은 에너지 위기에서 그 답을 찾으려는 여러 각도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었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신재생에너지를 미래전략사업

2020년까지 풍력·태양력·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전기자동차 등 스마트그리드 적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 극대화 체계를 마련해 203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 없는 세계적 녹색성장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탈원전'을 상징하고 획기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는 독일은 에너지 위기의 시대에 반면교사로 삼기에 충분했다.

원자력 비율을 제로화하고 2022년까지 신재생 비율을 44%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시행 중인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된 과학기술단지 육성과 미래를 위해서는 원전 폐쇄로 인한 손해와 이로 인한 불평을 감당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뒷받침되어 차분하게 진행중에 있었다.

특히 유럽 물류의 중심지이자 항구도시라는 이점을 살려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함부르크의 성공 신화는 미래전략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준비하는 많은 도시들이 벤치마킹할만하다.

석유와 원자력으로 대표되는 기존 에너지 고갈이 예견돼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세계는 자원전쟁이라는 대격량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에너지 믹스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근본적으로 화석연료가 부족해 에너지의 96.5%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불리한 여건이라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에너지 위기의 해법을 찾는 이번 기획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에너지 믹스의 답이 탈핵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있음을 각인했으면 한다. <끝>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 일대 실내온도 위반 업소 단속 현장(사진 위)과 친환경 건물들로 주목 받고 있는 독일 함부르크의 하펜시티 거리. 20기에 가까운 원전을 가동하고도 매년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실내온도 위반 업소를 단속하는 우리나라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건물을 지어 에너지를 절약하는 독일의 에너지 정책과 차원이 다르다.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061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살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사구 영광 →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 어등산 빌리지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출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선 오피스텔, 상가개발가능 9억6천
- 함평군 영암 읍지는 여관 대지 320평 권면211평 객실 21실과 함께 있는 2층 주거지 504평 땅에는 소형APT나 다세대 적합 10억5천
- 원흥·다세대주택 북동상업지 64평 매도1억6천
- 계림동 구호빌딩 대지 542㎡(164) 권면 1200평 요양시설·병의원·한의원·사육동에 적합 18억
- 대인동 소방도점 상업지 786㎡(238) 오피스텔·생물주택·다세대주택 9억5천
- 조선대학교앞 동명동 고시원과 주택 및 사무실 건물4동 대지321평 권면592평 고시원176실 전세5천만원에 월 3500만원선 수입예상. 대출9억 임대수익생활에 적합. 법인이전23억
- 대인동 소방서 부근대면 상업지 694㎡(210) 권면158평 광주은행 본점부근 공시지가에 매도11억6천

매도·임대

- 매도·수기동 상업지 705㎡(213) 원흥·투골·쓰리룸 927허가. 주택가격 12억가능. 투자에 적합 7억4천
- 매도·신안군 지도읍 아파트. 중도에 슬로시티와 엘도라도 가는 길. 바다가 보이는 별장용APT. 모임이나 회사의 복지시설도 적합. 30평과 41평이 있고 대출은 8천에서 1억가능. 가격은 1억2900만원과 1억8500. 임대도 가능하며 조건은 조정함.
- 임대. 신창동 보건대학 부근 주택전시관 1층167㎡(50) 전세 5천에 월200선 임대. 부위기있는 식당도 적합
- 임대·매매. 쌍촌동에 신축중인 기도건설의 기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탈급 시설의 풀플랜 9평형 주택. 입주는 11월 말경.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지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 문의 222-4994, 010-2632-5659  
금당부동산은 기도건설 전속중개사무소입니다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권면307㎡ 감정가4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권면 2821㎡ 감정가46억 최저가26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 6층상가 대지545㎡ 권면 2309㎡ 감정가13억 최저가7억

단독주택

- ▷ 북구 장등동 전원주택 대지763㎡ 권면137㎡ 감정가1억8천만
- ▷ 북구 유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권면161㎡ 감정가1억 최저가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 권면297㎡ 감정가1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및창고

-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1억 최저가8억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17억
- ▷ 강진읍 송덕리 냉동.저온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27억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1750㎡ 상당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제면 덕선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 ▷ 광산구 지평동 자연녹지 대지.전 2115㎡ 매매5천만(조정가)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념하고 건너편 ◀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